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une 26, 2026 Vol. 1014

믿음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세대 신앙 계승

생수의강선교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여름학교 사역

예배·선교·차세대에 집중
세대통합 예배로 신앙 전수
성경적 가치관 교육 강화
단기선교로 선교의 비전 심어

생수의강선교교회 2026 여름학교(VBS) 단체사진 ⓒ교회 제공

미주 한인사회는 반세기가 넘는 이민 역사를 거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이민 1세대의 헌신과 희생 위에 한인 후손들은 미국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 학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인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된 K-컬처의 열풍은 한인들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적인 성장과 성취 속에서도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음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뜨거운 신앙과 복음의 열정이 세대를 넘어, 미국 땅에서 자라나는 한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모든 이민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명이다.

특별히 청교도들의 신앙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 사회 속에서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다.

기독일보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붙들고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만나 그들의 비전과 사역 현장을 조명하는 연속 기획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다음세대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에 힘쓰고 있는 생수의강선교교회 최형규 목사를 만나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형규 목사는 교회가 다음세대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교회는 킨더가든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학교(VB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복음적 가치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최 목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여름학교 역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역으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VBS는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지만, 준비는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교회 스태프와 교육부 사역자들이 기획을 맡았고, 학부모들이 포함된 봉사자들은 한 달 반 전부터 주 3~4회 교회에 모여 게임과 장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증거인멸 염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5)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교단 간부들을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총선 등 주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최소 5만6천여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으며, 이후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조직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회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신천지 측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관련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진영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 Solar & Roof | 집수리 일 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213-310-1800

교회·학교·커머셜 빌딩·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영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토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MK 장학기금 마련 위한 사랑의 무대

오렌지카운티 교계의 대표적인 연합 찬양 행사인 '제39회 오렌지카운티 연합성가합창제'가 지난 6월 21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선교사 자녀(MK)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뜻깊은 무대로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한성준 집사)가 주최한 이번 합창제는 제7차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열렸으며, 행사 수입금 전액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행사 후 단체사진.

이날 행사에는 은혜한인교회, 감리랑합창단, 그랜드 페스티벌 콰이어 등 총 12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찬양을 선보였다. 또한 라훔여성합창단과 남가주장로성가단이 특별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다. 행사를 주최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한성준 집사는 감사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제39회 연합성가합창제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연합성가합창제는 교단과 교회를 넘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됨을 고백하는 귀한 축제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 행사가 선교사 자녀 장학사역을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복음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선교사 가정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사랑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창제는 교회와 교단의 경계를 초월한 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참가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확인했고, 선교사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후원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제39회를 맞은 오렌지카운티 연합성가합창제는 지역 교회의 연합과 선교적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윤준기자

생수의강선교교회, 예배 · 목장 · 선교 · 차세대 중심 목회

➔ 1면 기사 〈생수의강 선교교회〉에 이어서

최 목사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다. 다음세대를 향한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교회 이름인 LWMC의 약자에 교회의 비전을 담았다"며 "L은 예배, W는 목장 사역, M은 선교와 전도, C는 제자훈련과 차세대 사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는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매년 사역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다음세대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도 있기 때문에 차세대 사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다음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통합 사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대는 과거 우리가 자라던 환경과 많이 다르다.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세대통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성찬식과 예배 순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고 있다.

최 목사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왜 성찬식을 하는지, 왜 교회가 이런 예배 전통을 지켜왔는지를 다음세대가 경험할 수 있다"며 "언어적인 한계가 있지만 연간 네 차례 정도는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시절 미국으로 이민 온 최 목사는 현재의 다음세대가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환경과 다른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형규 목사

"예전에는 한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생활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오기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얻고 정착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아니다. 문화적으로도 많이 달라졌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사역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 목사는 "학교 개학 전에는 일주일 정도 아이들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송구영신예배 후 새해 첫 행사로 전 교인이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며 "교회 전체가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라고 밝혔다. 목회 방향에 대해 최 목사는 '회복'을 핵심 주제로 꼽았다.

그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마음속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든 이민을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처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영어로 위로해도 마음 깊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다"며 "교회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설교 역 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선교 역시 교회의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다. 교회는 오랫동안 후원해 온 선교지를 중심으로 단기선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원로목사님과 함께 현지 사역자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며 "올해 단기선교는 멕시코 테카테(Tecate) 지역에서 현지 교회와 협력해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기선교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봉사하는 기회가 된다"며 "미국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다른 환경을 경험하며 섬김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고 했다.

지역사회 전도 사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도축제'라는 이름으로 전 교인이 참여하는 전도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교회의 목장(그룹)별로 전도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최 목사는 "전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전도를 통해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과 복음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도축제를 통해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규 목사는 "예배와 목장, 선교, 그리고 다음세대 사역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이 다음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대 통합의 비결,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

제3회 세대통합목회세미나 김경윤 목사 강사로 나서

제3회 세대 통합 목회 세미나가 지난 6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2박 3일간 빅베어 레이크에 위치한 The Lighthouse Christian Retreat Center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목회의 방향과 실제를 함께 나눕시다"(욜 2:28)를 주제로 열렸으다.

강사로는 김경윤 목사가 나섰다. 김 목사는 광신대학교 제8대 총장, 목포창조교회 제22대 담임목사, 전 필리핀 선교사, 전 목포성시화운동 본부 본부장, 합동총회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이번 세미나는 3대 동일신앙 연구소 미주법인과 기독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는 강의에 머물지 않고, 강의 중간마다 김경윤 목사가 던지는 질문에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목회 현장과 사역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교회와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다음 세대의 현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의 어려움, 세대 간 소통의 과제 등을 나누며 세대 통합 목회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했다.

참석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세대를 세우는 방향을 보게 됐다"고 소감을 나눴다.

첫 번째 강의에서 김경윤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오늘날 많은 목회자의 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데'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보다 숫자, 재정, 영향력, 성공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면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목회가 되고 만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 먼저 정체성을 확인받으셨다며, 사역보다 먼저 자녀 됨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 뜻을 품고 세워 가는 목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목회는 목회자의 개인적 비전이나 교회 성장 전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드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회 세대 통합 목회 세미나에서 김경윤 목사가 가정예배와 신앙 전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책심이라고 설명했다. ⓒ 기독일보

숫자 · 재정 · 영향력 · 성공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영원히 동일하시듯, 그분의 백성도 같은 믿음 이어가야"
"같은 성경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함께 배워야"

그는 성경적 제자훈련은 "무엇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제자훈련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강의는 "삼대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세대 통합 목회의 핵심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가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역시 대대로 같은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삼대 동일 신앙이 형성되는 첫 번째 자리는 가정이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교회나 학교가 아닌 부모에게 위탁했다. 특히 가정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같은 신앙고백과 같은 말씀의 기준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신앙고백, 예배, 주기도, 십계명, 산상수훈의 삶이 세대를 이어 함께 붙들어야 할 핵심 내용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세대 통합 목회는 단순히 세대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은 성경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흐름을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언약으로 세우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사의 구조라고 해석했다.

그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인간의 본래 정체성을 가르쳐야 한다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그 가치는 세상적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홍해 이후 시내산까지 이어지는 광야의 사건들을 구원받은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해석했다.

또한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을 설명했다.

다섯 번째 강의는 레위기의 다섯 제사와 일곱 절기, 민수기의 진 배치와 행군 순서, 신명기의 쉐마,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과 정착을 통해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김 목사는 레위기의 다섯 제사를 통해 예배의 본질을 강조했다. 오늘의 예배 역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민수기의 진 배치와 행군 순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질서와 순종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성막과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중심도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통해 신앙 전수의 본질을 다시 다뤘다. 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 줄 때,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과 정복, 땅 분배와 정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모형으로 설명됐다. 구약의 정복이 물리적 땅을 향한 것이었다면, 신약의 정복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정복이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강의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누리는 부족함 없는 목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누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 곧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편 23편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전 생애의 여정으로 해석했다. 시편 23편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시작하지만, 의의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을 지나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요한복음 10장과 연결해 그는 예수님은 먼저 "양의 문"이 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어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양의 문이 구원과 생명, 안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면, 선한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온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며,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권면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대 통합 목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전수하고, 오직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세워지는 목회임을 확인했다.

조셉 리 기자

제3회 세대 통합 목회 세미나 참석자들. ⓒ 기독일보

다우니제일교회 44주년 “복음의 능력 드러낼 새 역사”

다우니제일교회가 44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창립 주일 행사로 컴패션 선데이가 진행됐다. ©기독일보

세상이 보는 것은 교회 건물 아닌, 성도들의 변화의 삶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검검해야
카페 수익금 통해 케냐 어린이 36명 후원 이어가

다우니제일교회(지영환 목사)가 지난 22일 창립 44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새 역사를 열어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지영환 목사는 로마서 1장 16-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강조했다. 지 목사는 “지난 44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주의 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우니제일교회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역사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지 목사는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이 깨어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는 다우니제일교회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복음의 능력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며, 세상을 이것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세상은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보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바라본다. 복음으로 우리의 언어와 성품, 가치관이 변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그는 창립 44주년을 맞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삶의 변화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주일 행사로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과 함께하는 ‘컴패션 선데이’가 진행됐다. 다우니제일교회는 3년 전 교회 카페를 완공한 뒤, 카페 수익금을 통해 컴패션 어린이들을 후원한 것을 계기로 현재 케냐 어린이 36명을 후원하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 빈민가 출신으로, 컴패션의 수혜를 받은 Njenga Maina 씨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과 가정, 다음 세대까지 변화시키는지를 나누었다.

그는 어린 시절 새총으로 새를 잡아 가족의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새총은 장난감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고, 미래를 꿈꾸기보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더 절실했다. 그는 가난을 자신 앞에 선 거대한 골리앗과 같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컴패션과 지역교회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음식을 얻기 위해 컴패션 센터에 갔지만, 그곳에서 안전함과 격려, 소망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후원자들의 편지와 관심은 그에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으며 나이로비 대학교와 미국 무디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길까지 열리게 되었다.

현재 Maina 씨는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하며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세우하고 있다. 그는 컴패션을 통한 변화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았다며 어머니와 누이,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버지도 나이로비 빈민가의 교회 개척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간증했다.

Maina 씨는 “새총 하나로 생존하던 소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다.

이날 예배는 황천영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민선 기자

여름방학은 신앙 성장의 시간… VBS 잇따라 개최

ANC 온누리교회 VBS 성료
나성영락교회 7월 VBS 예정

ANC 온누리교회 2026 VBS. ©기독일보

미주 한인교회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본격적인 VBS(Vacation Bible School) 시즌에 돌입했다.

VBS는 단순한 여름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중요한 신앙 교육의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는 성탄절처럼, VBS 역시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VBS는 1870년대 미국 뉴욕주 셔토쿼 레이크에서 감리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름 주일학교를 운영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여름방학 기간마다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체험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각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재무장함으로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복음적 가치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교육국 사역자, 봉사자들을 비롯해 온 교회가 힘을 모은다.

ANC 온누리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Shine Bright’를 주제로 2026년 여름성경학교(VBS)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ANC 온누리교회는 VBS에는 400여 명의 어린이와 300여 명의 교역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배웠다.

어린이들은 예배와 말씀, 찬양,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교회는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교역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편, 나성영락교회는 킨더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7월 16일-18일(목-토) VBS를 개최한다. 자체 VBS가 없는 교회들에게도 열려있다.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mgamsa
YouTube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듬/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듬/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TELOYOUTH
www.TeloHealing.com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 714-851-8035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진료부터 일상까지
당신의 100세 시대를 함께합니다

LIFESTYLE WELLNESS PROGRAM
일상을 채우는 **센터메디컬그룹**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노래와 웃음으로, 마음이 젊어지는 시간	부담 없이 움직이며, 무리 없이 즐기는	듣고, 웃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채우는 하루
문화 체험 공연	**건강 증진 스포츠 대회**	**정서 · 건강 세미나**

문의연락
888-847-3098 월 - 금 | 9:00 AM - 5:00 PM

QR코드를 스캔하시면 NO. 1 시니어 전문 한인 의료 네트워크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난민 아동 57%, 최근 한 달간 굶주린 채 잠들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난민 및 강제이주 가정의 자립 역량이 아동 보호를 위한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 8개국 난민 및 강제이주 가정 약 3,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최근 전 세계적 인도주의 지원 감소와 식량난 심화로 아동들이 영양 결핍과 학업 중단, 조혼, 가족 분리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57%는 최근 한 달 동안 가족 구성원이 굶주린 채 잠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21%는 자녀가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1%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량 불안 수준이 심각한 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보다 조혼 위험이 약 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식량 위기와 빈곤이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가정의 자립 역량은 아동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립 역량이 높은 가정의 아동은 △음식이나 돈을 구걸할 가능성이 56% 낮았으며, △생계를 위한 학업 중단 가능성은 38% △조혼 가능성은 33% △가족 분리 가능성은 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비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난민과 강제이주 가정이 안정적 소득과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만다 라이브스(Amanda Rives) 월드비전 국제 인도주의 정책·옹호·협력 담당 선임국장은 “전 세계 많은 아동들이 분쟁과 강제이주, 식량 위기로 인해 반복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급구호뿐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 기반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드비전은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난민의 노동·교육·사회보장 접근권 확대 △예측 가능한 양질의 인도적지원 재원 확보 △인도주의·개발·평화 구축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 지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동”이라며 “식량 위기는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 중단, 조혼, 아동노동, 가족 해체 등 아동의 삶 전반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월드비전은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단 동부 제벨 마라 페이나 지역에 정착한 피난민들의 모습.

한국월드비전은 분쟁, 기후위기, 감염병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족을 위해 식량 지원, 긴급상황에서의 교육과 아동보호, 재난 위험 경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미쉘 기자

기독교인 3명 중 1명 “최근 1년간 2주 이상 우울 경험”

기독교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렸을 경우 이를 교회에 공개하겠다는 응답은 3명 중 1명 수준에 그쳐, 교회 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돌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한국교회탐구센터 의뢰로 올해 초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인의 우울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독교인은 33%였다. ‘우울감을 경험했으나 2주 미만으로 지속됐다’는 응답은 14%,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다.

우울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우울 증상이 시작된 계기를 물은 결과, ‘경제적 문제’가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 문제’ 36%, ‘가족 문제’ 32%, ‘취업·직장·학업 스트레스’ 31% 순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에 대한 인식에서는 오해와 편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본인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29%, ‘매우 영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항목에는 28%가 동의했다. 특히 우울 증상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각각 41%, 34%가 동의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교회 내 우울증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64%가 ‘목회자도 일반 성도처럼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9%는 ‘우울증 성도에 대한 교회 내 부정적·차별적 시선이 있다’고 답했다. 우울 증상이 있는 응답자에서는 이 비율이 3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을 공개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을 경우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반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34%, ‘보통’은 35%로, 응답자의 69%가 공개를 꺼리거나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울 증상이 있는 응답자들은 ‘교회 봉사 및 활동’(44%)이 가장 크게 줄었다고 답했으며, ‘다른 교인과의 교제’(36%), ‘성경 읽기와 묵상’(34%), ‘소그룹 참여’(3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예배 참석’ 감소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정서적 지지 기반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72%는 우울할 때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답했지만, 우울 증상이 있는 응답자에서는 60%로 낮아졌다.

특히 소그룹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정기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 가운데 정서적 지지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였으나,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64%에 그쳤다.

우울할 때 도움을 기대한 대상에 대한 조사에서는 우울 증상이 있는 응답자의 34%가 목회자나 성도 등 교회의 도움을 기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소그룹 참여자(64%)가 비참여자(27%)보다 크게 높았다.

교회 내 상담 전문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7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상담 전문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 전문 목사’와 ‘상담 전문 교인’은 각각 30%였다.

우울 해소에 도움이 된 방법으로는 ‘운동·산책 등 신체활동’과 ‘기도·예배·성경읽기 등 신앙활동’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체활동은 행동률 38%, 도움도 83%였고, 신앙활동은 행동률 33%, 도움도 7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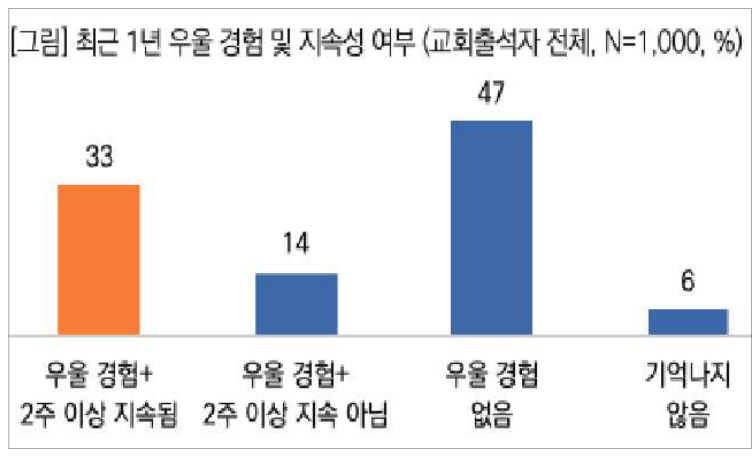
반면 ‘출석교회 교인에게 이야기했다’는 응답은 17%, ‘목회자에게 상담이나 기도를 요청했다’는 응답은 14%에 머물렀다. 또한 목회자 상담의 도움도는 63%로, 교인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도움도(70%)보다 낮게 조사됐다.

목회자의 우울증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됐다.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상황에서 우울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치료하면 되므로 상관없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지만, ‘청빙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도 31%에 달했다.

반면 이미 시무 중인 담임목사가 우울증을 겪을 경우에는 60%가 ‘사임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으며,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16%였다.

또 목회자가 자신의 우울증을 교인들에게 공개할 경우 교회 사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응답은 42%였다.

김진영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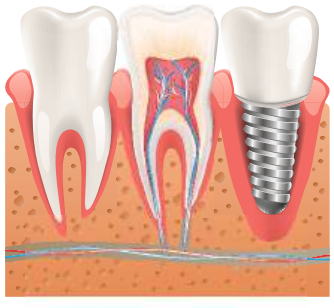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종, 써니김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폴 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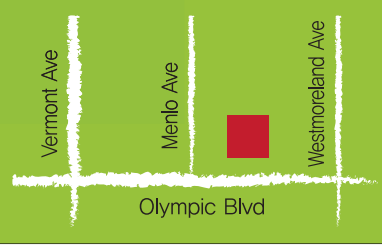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에스더 이 원장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SMG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는 메디칼그룹이 또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기에
SMG는 진료 이전에
당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사와 병원,
보험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유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30년동안 당신을 지켜온 SMG 기록

5,500명의 의료진	폭넓은 병원 및 보험사	우수 의료 제공자

800.611.9862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타이틀 후원사 센터메디컬그룹

TOP7 미스트롯4

& 스페셜게스트 '부초같은 인생' 김용임

시청률 신화의 요정들 미국 상륙!

트롯레전드 김용임 출연 확정!

윤윤서 길려원 허찬미 이소나 홍성윤 윤태화 염유리

LA Live Concert

2026. 8. 22 (토)

2:00PM, 6:30PM(2회 공연) | 윌셔이벨극장

특별협찬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 cbb Bank

공연티켓문의 (213)459-6800

$70~$450 1층

$45~$220 2층

Chosun Daily LA 미주조선일보

공연티켓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朝鮮日報 창간 106주년 미주조선일보 창간 7주년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멕시코크루즈 & 선상콘서트

"럭셔리 '피렌체' 호에서 최상의 음향과 조명시설을 갖춘 선상크루즈 콘서트를 감상하세요."

"미스트롯4 TOP7 & 트롯레전드 김용임과 함께하는 선상 콘서트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세요!"

8월 24일(월)~28일(금)

4박 5일간, 28일 금요일 오전 하선 예정

압도적 파격가

인사이드 ~~$899~~ $599

오션뷰 ~~$1079~~ $699

발코니 ~~$1299~~ $799

카탈리나섬 투어, 멕시코 엔세나다 - 마리아치 공연 & 민속춤, 프라이빗 선상 공연

1인당/2인1실 기준 - 예약시 완납 Non Refundable, 4박5일 유람선 비용, 모든 세금(포트세, 정부세) 포함

여행의 명문 - 엘리트투어 ELITE TOUR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 EliteTourUS com email: info@elitetourus com

나이지리아 종교 폭력 사태 악화

ⓒfree3d.com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연쇄 테러와 대규모 납치 사건이 발생해 현지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고 6월 21일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나이지리아 중부 플래토주 조스 사우스 지방정부 관할의 겔 마을 내 제로 지역 광산에서 작업 중이던 기독교인 5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풀라니족 무장세력에게 살해됐다.

지역 청년 지도자인 르왕 텡웡은 이번 광산 습격이 인근 국립정책전략연구소(NIPSS)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 보안 요원 3명이 사망한 직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제로 마을은 해당 연구소에서 약 5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지역 전반의 안보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겔 마을에서 36세 기독교인 셰드락 달요프가 풀라니족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에게 살해당하는 등 풀라니족 테러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CDI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의한 대규모 납치 사건의 피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지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지난 3월 그워자 카운티 응고셰 마을에서 500명 이상의 주민이 보코하람에 납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4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억류된 기독교인 중 일부는 무장세력에 의해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피납 사태의 해결 과정을 두고 지역 사회와 정부 간의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며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남부 보르노주 청년 지도자 이브라힘 사마일라 카이가마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군이 434명을 구출했다는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민들이 직접 중재자를 통해 몸값을 지불하는 협상을 벌인 끝에 6월 6일 416명을 풀려나게 했으며, 여전히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약 100명의 기독교인이 억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바가나 우마라 줄룸 보르노주 주지사는 공식 성명을 내고 나이지리아 국군과 국가안보국 등 보안 기관들의 합동 작전을 통해 434명의 피납자를 안전하게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피납자 구출의 주체와 정확한 억류 인원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나이지리아 치안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종 통계는 나이지리아 기독교 박해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 오픈도어의 2026년 세계 감시 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4849명 가운데 72퍼센트에 해당하는 349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전년도 3100명에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가장 위험한 국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승연 기자

中, 시온교회 목사들에 성경 전달 허용

시온교회 에즈라 진(김명일, 진밍리) 목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차이나에이드

중국 당국이 수감 중인 가정교회 목회자들에게 성경 전달을 허용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종교 자유 제한으로 논란을 빚어 온 중국 내 구금시설 정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기독교인 수감자들에게도 성경 접근의 길을 열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에 따르면, 베이징 시온교회 설립자인 에즈라 진(Ezra Jin·김명일) 목사와 쑨콩(Sun Cong) 목사가 최근 구금 중 성경을 전달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체포 작전 이후 구금된 베이징 시온교회 관계자 18명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이번 성경 전달은 쑨콩 목사의 변호인이자 기독교인인 양후이(Yang Hui) 인권변호사의 법적 대응 결과 성사됐다. 양 변호사는 구치소 측이 수감자의 종교 서적 접근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단순히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베이하이시 정부는 공식 서면 답변을 내놓았고, 이후 당국은 변호인을 통해 쑨 목사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했다.

앞서 에즈라 진 목사 역시 베이하이 구치소 수감자 가운데 처음으로 성경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에이드 설립자 밥 푸(Bob Fu) 목사는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부가 공식적인 서면 형태로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구금시설은 일반적으로 보안이나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수감자들의 종교 자료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는 향후 기독교인 수감자들의 가족이나 변호인들이 동일한 법적 절차를 통해 성경 반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7년 설립된 베이징 시온교회는 수천 명의 신도가 모이는, 중국 최대 규모의 도시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8년 교회 내 감시장비 설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교회 예배당을 폐쇄했다.

이후 이 교회는 소규모 모임과 온라인 사역을 통해 활동을 이어왔지만, 2025년 10월부터 지도자들과 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면서 압박은 더욱 강화됐다.

현재 진밍리 목사와 쑨콩 목사를 비롯한 18명의 목회자와 교회 관계자들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맡은 일부 변호사들 역시 직무 제한이나 행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례는 종교 자유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서도 중국 행정체계 안에서 제한적이나마 법적 구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전국의 다른 구금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또는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단순한 성경 한 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제약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조금씩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자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샘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미국인 "더 종교적인 사회가 긍정적" 응답 감소

미국인 가운데 더 많은 국민이 종교를 갖는 것이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율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여성,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54세 이하 성인층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이 지난 5월 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50개 주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치관 및 신념(Values and Beliefs)'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더 많은 미국인이 종교를 갖는 것이 사회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13년 조사 당시 75%에서 1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종교 인구 증가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였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의견이 없거나 종교 인구 증가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종교와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공화당 지지자(94%), 가톨릭 신자(85%), 개신교 및 초교파 기독교인(81%)만이 종교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와 젊은 성인층, 여성층에서 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종교 인구 증가가 미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013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3%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2013년에는 여성의 77%, 남성의 73%가 종교를 긍정적인 사회적 힘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는 종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여성의 비율이 61%로 떨어진 반면, 남성은 70%를 유지했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응답자 가운데 종교 인구 증가가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49%에 그쳤다. 이는 2013년보다 1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또한 35세에서 54세 연령층의 경우 해당 비율이 2013년 80%에서 올해 66%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종교 인구 증가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16%포인트 감소해 51%를 기록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3%포인트 상승해 94%에 달했다.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사회 내 종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전 11%에서 현재 48%로 크게 늘어났다. 무당층은 21%에서 39%로 증가했으며, 민주당 지지자도 32%에서 35%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도덕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도 확대됐다. 전체 응답자의 69%는 정부 정책이 도덕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으며, 이는 2006년의 59%보다 높아진 수치다. 반면 27%는 정부 정책이 도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갤럽은 지난 20년 동안 모든 주요 인구집단에서 정부 정책이 미국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가톨릭 신자, 젊은 성인층, 그리고 매주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도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인의 비율은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갤럽의 제프리 M. 존스 선임 편집자는 "이번 조사는 공화당 행정부가 종교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시점에 실시됐다"며 "백악관 신앙국설립, 정부 회의에서의 기독교 기도, 연방 공무원의 직장 내 신앙 표현 장려 등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갤럽 조사 결과는 지난 5월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조사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다수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절반 이상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학교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기자

증오 범죄법, 종교 표현 자유 위축 논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캐나다 의회가 증오 범죄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발언을 혐오 표현의 예외로 인정해주던 법적 방어권을 삭제으며 이에 대해 캐나다 기독교계는 종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6월 19일 보도했다. 캐나다 하원은 지난 17일 이른바 증오 범죄 방지법으로 불리는 'C-9 법안'을 가결했다. 혐오 선전물 유포와 증오 범죄 그리고 종교 및 문화 시설 접근 방해 등과 관련해 형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다음 날 군주의 재가를 받아 공식적인 효력을 얻었다. 앞서 캐나다 상원은 지난 4일 보수당 소속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강하게 요청했던 종교 표현 보호를 위한 추가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증오 범죄법 개정안 통과와 종교적 신념 방어권 삭제

CDI는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증오 범죄법은 특정 혐오 관련 상징물의 공개적인 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증오를 동기로 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배 장소나 종교적 지역사회 집회 장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하며 소수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기독교 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증오 발언 혐의에 대해 '선의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울 수 있었던 법적 방어권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EFC)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C-9 법안 통과가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 경고했다. 연맹은 법안 통과로 인해 선의의 종교적 신념 방어권이 제거되었다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경우 더 이상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선의의 행동이었다고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에 따르면 이 방어권은 고의적인 증오 조장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네 가지 안전장치 중 하나였다. 발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거나 공익에 부합하거나 혐오 표현물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해 선의로 지적한 경우 등 다른 세 가지 방어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오직 종교적 신념 관련 조항만 표적이 되어 삭제됐다.

종교 표현 자유 위축 우려와 교계의 복음 전파 의지

캐나다 복음주의 교계는 이번 개정안이 종교적 신념을 나누다가 혐오 발언으로 억울하게 기소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 보호막을 거두어 감에 따라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심각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교적 신념 방어권의 삭제가 향후 사법 현장에서 고의적인 증오 조장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확장시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캐나다 정부는 시민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과 여러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에 명확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체포 후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방어권으로 고려하는 대신 애초에 증오의 정의를 내릴 때 선의의 종교적 관행 보호를 먼저 참작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맹은 이 조항이 본래 교계가 요구했던 명확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의의 종교적 관행과 표현 자체가 처음부터 증오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승연 기자

MLB ‘무지개 모자’ 옆 성경구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의 ‘무지개 모자’. ⓒ 구단 SNS

미국 메이저리그(MLB)가 6월 13일 ‘프라이드 나이트(Pride Night)’를 맞아 ‘무지개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제작해 선수들이 착용한 가운데, 모자에 성경 창세기 구절을 적어넣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수 3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MLB는 1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San Francisco Giants) 투수 랜든 루프(Landen Roupp), JT 브루베이커(JT Brubaker), 라이언 워커(Ryan Walker) 등 3인에게 “향후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6월 1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대 시카고 컵스 전에서 열린 ‘프라이드 나이트’ 행사였다. 이날 경기에 앞서, 경기장 오라클 파크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 갱신식’도 열렸다.

이날 선수들은 무지개색 로고가 들어간 특별 모자를 착용했는데, 루프와 브루베이커, 워커는 모자 옆면에 ‘Genesis 9:11-16’ 또는 ‘Genesis 9:12-16’ 등의 성경구절을 적어 경기에 나섰다. 다른 투수 샘 헨지스(Sam Hentges)는 아예 무지개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반 모자를 썼다. 이들이 적은 창세기 9장 12-16절은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동성애 진영이 무지개가 뜻하는 성경적 의미를 변질시키려는 의도로 ‘6색 무지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항해 기독교인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이다.

루프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며 “증오(hate)는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누군가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먼저 성경을 읽어 보길 권하고 싶다”며 “우리는 각자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MLB는 일단 선수들의 행위가 표현 내용 때문이 아니라, 유니폼 규정 위반이기에 경고했다는 입장이다. 팻 코트니 MLB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모자에 글을 적는 행위는 리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선수들에게 향후 위반 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벌금이나 출장 정지 등의 추가 징계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미국 현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동성애자 진영은 당연히 선수들에게 비판적이다. 현지 매체 아웃스포츠(Outsports)는 선수들의 행동에 대해 “‘프라이드 나이트’를 겨냥한 반(反)LGBTQ 메시지”라며 “무지개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찾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선수들이 성소수자 공동체의 상징을 ‘무기화했다’”는 평가도 전했다.

전통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들도 비판적이다. 일부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즌권을 포기하겠다”, “도시의 포용 정신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미경 기자

‘상실 통해 삶의 의미 더 깊이 깨달아’

닉 부이치치, 아버지 별세 회고…

닉 부이치치. ⓒThe Christian Post

팔다리 없이 태어나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기독교 복음전도자 닉 부이치치(Nick Vujicic)가 아버지의 죽음을 회고하며 상실과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부이치치는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 ‘노 림스, 노 리미츠: 더 닉V 스토리(No Limbs, No Limits: The NickV Story)’의 영상 클립을 통해 2017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Boris Vujicic)의 장례식 당시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오는 9월 25일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영상 속에서 부이치치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시작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다.

부이치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에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 왔지만, 아버지를 잃은 일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생이란 결국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닉V 미니스트리즈(NickV Ministries) 설립자인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 심각한 장애를 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어린 시절 지속적인 괴롭힘과 우울증을 겪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이후 20여 년 동안 전 세계 87개국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해 왔다.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부이치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사람마다 슬픔을 다루는 방식은 다르지만, 나의 경우 한동안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다”며 “이제는 감정을 억누르며 쌓아두기보다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그립지 않은 날은 없다”고 말했다.

보리스 부이치치는 2017년 8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부이치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천국으로 가셨다”고 전하며 부친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

보리스는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아들과 함께 ‘완벽하게 불완전한 아이 키우기(Raising the Perfectly Imperfect Child)’ 홍보 인터뷰에 출연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아들에게 “네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하나님께서 네 장애를 장애인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말했다.

부이치치는 다가온 아버지의 날(Father’s Day)을 맞아 아버지의 유산이 지금도 자신의 삶과 사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날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후12: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www.icccla.org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목요 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9:4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주일학교 오전 11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아이넥스 프로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i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베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슬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인간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세운교회 일일 부흥회 이필재 목사 초청

주님세운교회가 이필재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 기독일보

주님세운교회(담임 신용환 목사)는 21일 주일 이필재 목사(전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담임, 전 평택대학교 총장)를 초청한 1일 부흥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1·2부 연합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드려졌으며, 오랜만에 이필재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본당을 가득 메웠다.

이필재 목사는 누가복음 15장 25~32절을 본문으로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전하며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오랜만에 이필재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 감사했다",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님세운교회 관계자는 "원로 목회자로서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온 이필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특별히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다시 뵙기를 원했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부흥회는 세대와 교단을 넘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전을 마음에 새기며 예배를 마쳤다.

주님세운교회는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ANC 온누리, 인싱크 대학 가을학기 모집

6월4일(목) ANC 온누리 교회 (담임 김태형 목사) 부설 인싱크 대학 (학감 이진형 목사)의 봄학기 종강식이 있었다.

지난 3월 5일에 개강하여 14주간 매주 목요일에 35개 학과가 개설된 이번 봄학기 등록자 수는 358명이었으며 교수 34명과 봉사자 18명이 참여했다.

이번 가을학기는 8월 27일(목)에 개강하며 추수감사절 전 주 목요일인 11월 19일 종강한다. 총 13주 동안 진행되며, 한 학기 등록금은 100불이고 점심과 오후 방과활동도 제공된다.

개설 과목에는 성경강해, 예방의학, 한방뜸, 힐링톡, 스마트폰(아이폰 AI. 삼성폰 AI), 의료영어반. 영어성경반, 핸드벨반, 색소폰(초.중)반, 레크리에이션, 바둑, 편물, 미술, 드럼(초.중), 장구, 우쿨렐레(초.중), 기타, 리코더(초.중), 피아노(증), 키보드, 건강댄스, 라인워십,고전무용, 바이오그라피반, 캘리그라피반, 퍼커션(일명. 난타)반, 시니어 코어 근력반이 있다.

점심후 방과 활동반에는 합창, 배드민턴, 탁구, 바둑이 운영된다.

우편 등록을 원하는 경우,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및 원하는 1, 2교시 학과를 등록금(Check only) 100불과 함께 아래 주소 앞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ANC 인싱크 대학
10000 Foothill Blvd. Lakeview Terrace CA 913 (Pay to ANC. $100)
문의: 이진형 목사 (213) 305 1698

남가주 소식

▶ 충현선교교회 설립 기념 부흥회

"은혜받아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7월 17일(금)부터 19일까지 한기홍 목사와 사무엘 한 목사(은혜한인교회 부목사)가 강사로 서 부흥회를 이끈다.

일시: 7월 17일(금) 7:30PM
7월 18일(토) 5:30AM, 7:00PM
7월 19일(주) 1-3부, 2PM

▶ RUN ON 얼바인온누리교회 션 초청 집회

얼바인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가 6월 28일(주일) 3부, 4부 예배 때 션 초청 전도집회를 연다.

▶ 은혜한인교회 신약 통독 모임

7월 18일(토)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신약 통독을 진행한다. 참가비 40달러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 가능. (문의: 714-381-6170)

▶ 독서 & 아트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는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특별한 아트 프로그램을 7월 11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까지 진행한다. 대상: K-5학년(K-2학년 부모 참석 요망) 신청 6월 28일(주)까지 선착순 20명, 회비 $10, 신청은 드리머스센터 및 안내데스크, QR 코드.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 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말은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이 남긴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신을 과거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후회는 늘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조용한 절망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용한 절망 속에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언덕에서도 소망의 집을 짓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롬 15:13).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운명론에 빠져 살았습니다. 운명론이란 '모든 사건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입니다. 운명론은 말합니다. "이미 결정되었다. 바꿀 수 없다. 너무 늦었다."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운명론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은 열린 존재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실패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지은 죄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름다운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나간 실패를 새로운 해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혜란 경험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 이유는 실패를 해석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실패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실패는 방향을 수정하는 이정표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방향을 조절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선용하시지만 과거에 묶어 두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롬 4:17하).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둘째, 작은 시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작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대한 변화를 꿈꾸다가 정작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디딘 한 걸음이 구속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한 권의 책은 먼저 한 문장을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쓴 책들도 결국 한 문장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시도를 반복하는 습관이 결국 인생의 미래를 만듭니다.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
소망은 과거보다 미래를 본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이정표다

셋째, 계속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멈추는 것은 선택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하지만,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갑니다. 배움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배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배웁니다.

넷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민족 구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보십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나이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영혼은 늘 청춘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향한 창문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오늘이 가장 늦은 날이 아니라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봉주 칼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와 재정"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를 통하여 선교회의 재정을 신실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저서인, 중국의 영적 필요와 권리에 실린 글을 보면, 허드슨은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든 사역을 위해 필요한 돈이든 신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대한 선교지에 일꾼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교통비와 그 외 필요한 것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의 수고를 통하여 전체 18개 성 가운데 14개의 성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의 영향으로 세금과 인플레이션 비율이 급등하여,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우에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람된 표현을 조금 해도 될까요? 재정을 담당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주님께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활비가 치솟고 있고 공급해 주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자원은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믿음은 환경을 넘어선다

그렇다고,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CIM 선교기관이 재정으로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긴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선교회를 돕는 한 후원자가 "'선교사들이 너무 가난해서 사역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허드슨 테일러는 즉각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와 관련된 선교사의 아이들이나 가족 가운데 음식이나 의복이 부족했던 적은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물론 꼭 필요했던 재정이 예상보다 늦게 채워진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금이 부족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재정 때문에 건강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재정이 부족해서 선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회를 함께 하는 동료 선교사들에게서 충성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허드슨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 결코 공급을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고, 잠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THIS. IS.

RUACH.

The Voice — Praise Concert

Venue

The Novo
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Dates

Sat. 8.01 — 6:30PM
Sun. 8.02 — 6:30PM

Tickets

$50 & $60
—
213.357.1565
562.766.9494

Pastors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봉주 목사 조셉리 목사

Special guests

소향

션

주최 주관 Loving Worship **대표 목사** Joseph Lee **Producer** Troy Choi

LOVING WORSHIP

강태광 칼럼

절박에서 출발한 품격과 천박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최근 김기석 목사의 『최소한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었다. 제목이 좋아서 읽었는데, 최소한의 품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글은 없었다. 하지만 김기석 목사는 여러 글에서 시민이,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을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을 읽으며 절박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최소한의 품격을 생각했다.

투표 사태로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 앞에서 선수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절박하게 부탁했다.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운동 장비를 찾으러 온 선수들은 간절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들은 외부 인원의 출입이나 물품 반출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참정권 박탈에 분노하며 부실한 투표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시위대 역시 절박해 보였다.

6.3 선거는 숱한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특히 시선을 끌었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복귀와 한동훈 의원의 등원은 모든 뉴스의 머리기사를 장식했다.

6.3 선거를 지켜보면서 '절박'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모든 선거 현장에는 절박함이 있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도 절박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절박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박해 보였고, 어떤 사람은 천박해 보였다. 관건은 '그 절박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였다.

절박함을 가장 근사하게 빚어낸 사람이 한동훈이다. 절박한 한동훈은 변했다. 검사의 뻣뻣함도, 서울내기의 뺀질거림도 사라졌다. 길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할머니가 건네준 찰밥을 먹는 장면은 6.3 선거의 최고의 명장면이었다. 반면 절박함을 잘못 빚어낸 후보는 박민식이다. 그 역시 절박했지만 정제되지 못한 언어와 태도로 그의 절박함은 빛이 바랬다. 그의 삭발도, 상대를 향한 비난도, 옛 대통령을 찾아가는 모습도 내 눈에는 천박해 보였다.

길거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이 천박해 보이지 않고 절박해 보이는 것, 그것이 품격이다. 먹을 것이 없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었다면 천박하고 초라해 보였을 것이다. 결연한 의지로 삭발식을 한다면 보통은 절박해 보인다. 그러나 구포갑을 비롯한 6.3 선거에서는 삭발이 절박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

천박한 절박은 평택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나라도 진영도 고려하지 않는 진흙탕 싸움은 한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벌인 촌극이었다. 절박에서 나오는 천박과 품격의 분기점은 대의적 절박과 소아적 절박이다. 절박함의 뿌리가 천박과 품격을 결정한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절박한가?'를 물어야 한다.

6.3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저녁, 대구 동성로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던 김부겸 후보가 눈물을 흘렸다. 김 후보는 자신의 40년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유세가 될지도 모른다며, 작고한 아버지의 애창곡인 '전선야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다. 김부겸은 진영을 떠나 6.3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패배자로 알려졌다. 일흔의 김부겸이 흘리는 눈물은 천박해 보이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절박하지 않은 목회자가 있을까? 교회를 개척하고도 느긋하고 여유로운 개척교회 목사가 있을까? 그러나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덤빈다면 천박해진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목회자가 품격 있는 목회자다.

미국 D지역에서는 K목사와 H사모를 '독립군'이라 부른다. 그들이 절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독립군을 닮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은 웬만한 도움과 협력도 정중히 거절한 채, 절박한 마음으로 잃은 영혼들을 섬긴다. 그들은 각각 세 가지 직업(Job)을 가지고 있다. 음악 레슨도 하고, 우버 운전도 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한글학교 교사로도 일한다. 생계와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들의 삶은 한편으로 고달파 보인다.

그들의 사역과 진정성을 아는 주변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교회의 도움과 편의를 받게 되면 낙심한 영혼들을 마음껏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들은 영혼을 섬기는 일에 절박하다. 사람에게 절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박하려고 몸부림친다.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며(간구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사모한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박한 순간이 있다. 우리의 절박함이 품격 있는 절박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과 사역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리라. 절박할수록 더욱 품격 있고, 절박할수록 더욱 근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새라 김 칼럼

창조질서를 회복하려는 미국의 6월

오바마와 바이든의 친동성애(LGBTQ++) 정책들로 인해 급격히 바뀐 미국의 성 정체성 문화는 지난 10여 년 동안 6월 한 달 내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문란한 'LGBTQ Pride Month(동성애 긍지의 달)'**라는 명목 아래, 마치 국가 행사처럼 백악관 안에서까지 기념 및 축하 행사가 열려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6년 6월의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6월을 더 이상 'LGBTQ Pride Month'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소매점들도 LGBT 관련 진열물 철회

백악관은 6월을 더 이상 'LGBTQ Pride Month'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강력한 '2개의 성별(Two Sexes)' 정책 아래, 이번 백악관의 공식 선언은 그동안 LGBTQ Pride Month 관련 기념품을 판매해 오던 기업들과 비즈니스들이 관련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소매점에서 무지개 깃발이나 기타 LGBT 관련 상품의 홍보를 자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족의 달'로 바뀌기 시작한 배경

6월을 성경적 가족 가치관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성별의 질서'를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 연방 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경된 Title IX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회복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확대 해석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6월을 'Title IX의 달(여성 보호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메리 밀러(Mary Miller) 미국 하원의원은 LGBTQ 프라이드 달의 성적으로 문란한 기념행사들을 비판하며 6월을 '가족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은 6월 한 달 내내 핵가족을 폄하하는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동성애 프라이드 달의 전시물과 행사들에 시달려 왔다"며, 미국 시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왜곡된 사상과 이념에 기반한 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주지사들의 선포

미국 전역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6월 'LGBTQ Pride Month' 행사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적 관점에 입각한 가족 중심 행사를 제안하며,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공동체를 장려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들은 6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가족의 본질'**을 기념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의 시작인 태아 생명 보호 캠페인

일부 주에서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핵가족을 지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케빈 스팃(Kevin Stitt)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모든 인간의 생명에는 본질적인 존엄성과 가치가 있다. 그렇기에 오클라호마주는 6월을 '생명의 달'로 선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의 빌 리(Bill Lee) 주지사는 6월을 '핵가족의 달'로 지정하며, "한 명의 남편, 한 명의 아내, 그리고 친자녀·입양아·위탁아를 포함한 모든 자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 구조"를 기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주지사도 주정부 차원에서 '핵가족의 달'을 지정한 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이번 선포를 통해 가족들이 우리 주와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라배마주의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는 올바른 가정 구조의 중심은 가정의 가장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끄는 가정은 아이들에게 평생 성공하는 데 필요한 체계와 규율을 심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동성애 긍지의 달'이 아닌 '강한 가족의 달(Strong Families Month)'을 기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시국 성명서

사라진 투표용지, 무너진 참정권!

참정권이 침해되면 민주주의도 멈춥니다

2026년 6월 3일
제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날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태!

"투표용지 한 장에는
주권자의 희망과 소중한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 주어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없었다.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에는 주권자의 희망과 소중한 권리가 담겨 있다. 그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증발됐다. 참정권이 침해됐다. 민주주의도 멈췄다.
- 참정권 침해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한법파괴 행위다. 2026년 6월 3일 제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날에 민주선진국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전국의 대학가를 비롯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 분노의 함성은 전 세대로 확산되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선거 수개표'의 구호가 대한민국 전역에 메아리치고 있다.
-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착오로만 보이지 않는다. 헌법상 과도하게 보장된 독립성과 와부 견제장치 부족으로 인한 '조직적 방만함', '총체적 관리 부실' 등 무능과 독선으로 점철된 선관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치되어온 게 선관위 비리다.
-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선거 시스템 파괴는 한정질서 파괴행위로, 그 우선적 책임온 선관위에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참정권 수호운동 미주본부는 초당적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선관위의 책임소재**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
2.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약속하라.
3. 국민의 여망에 따라 문제가 들어난 지역에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
4. 이를 위해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선거관리 기구**를 구성하라.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대한민국 참정권 수호 운동에

200만 미주 한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가 하나가 되어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
*미래*를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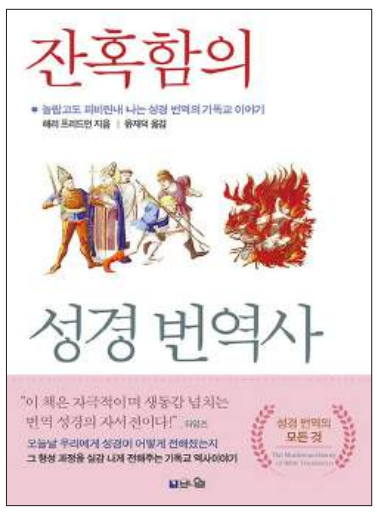
2026년 6월 24일

대한민국참정권 수호운동 미주본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송정명·한기홍 목사)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김운목 목사)
OC교회협의회 (최국현 목사) | 사우스베이 목사회 (신용환 목사) | CBS 중보기도팀 (한기형 목사)
KCM USA (민종기목사) | 다민족 기도회 (강순영 목사) | Kingdom World Mission (김인식 목사)
월드쉐어 (강태광 목사) | 국가원로회 (김향로 장로) | 이승만기념사업회 (박요한 장로)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최학량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성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놀랍고도 피비린내 나는, 자극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잔혹함의 성경 번역사

해리 프리드먼 | 유재덕 역
브니엘 | 368쪽

이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처럼
"이처럼 오래되었으나
이처럼 새롭고 매력적인"
성경을 대중에게 전하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놀랍고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것을 위해
저자 해리 프리드먼은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칠십인역(셉투아진트)부터
중세 번역 성경에
얽힌 극심한 갈등,
현대 번역 성경의 본격적인
등장 배경에 이르기까지
번역 성경의 역사를
두루 살핀다

예전 어떤 어린이 캠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게 해주려고, 그들 앞에서 성경책을 마구 밟은 적이 있다고 한다.

성경은 확실히 책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인간의 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담아내신 신적 계시이기 때문에, 확실히 성경을 모욕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이 지금 독자의 손에 오기까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바꿔 개인이 자유롭게 소지하고 읽고 누릴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잔혹한 역사가 있어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대마다 권력과 기득권이 인정하는 것에 반하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심지어 그 성경을 지지하거나 소지한 사람까지) 잔혹한 형벌을 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 중 하나가 성경 번역이었다는 말이다.

그런 성경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짓밟히고 불태워졌으며, 절대 읽지 말아야 할 금서가 되었다.

해리 프리드먼은 그 '잔혹함의 성경 번역사'를(책 제목이기도 하다),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놀랍고도 피비린내 나는 성경 번역의 기독교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출간된 이 책은 타임스로부터 "자극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번역 성경의 자서전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리드먼은 런던대학에서 아람어를 전공한 영국 작가이자 학자다. 『복음서의 숨겨진 이야기』의 저자이기도 한데, 국내엔 아직 이번 책 『잔혹함의 성경 번역사(브니엘, 2025)』만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아람어 전공자라, 성경 번역이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님을 잘 알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성경 번역 역사를 풀어나가면서, 여러 정치적·종교적·사회적 배경을 생동감 있게 설명하는 동시에, 번역 작업 자체의 여러 고충과 특별한 절차와 과정 등을 자세하게 언급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프리드먼은 이 책을 '알렉산드리아의 유산', 곧 칠십인역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어 구약성경인 페쉬타와 타르굼을 소개하고, 신약성경 페쉬타와 불가타를 설명한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아람어로 성경이 번역된 과정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중세 시대를 조명할 땐, 2부 제목처럼 '폭력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의 현장이 정말 끔찍하고 무서웠다. 종교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나 틴데일의 번역, 가톨릭 성경과 이디시어 성경, 제네바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오랜 경쟁,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시도된 성경 번역 역사와 러시아 성경, 비교적 현대에 시도된 성경 번역과 개정 역사, 마지막으로 현대적 이슈(가령 성차별, 젠더 정치)가 반영된 번역 시도 등이 저자의 독특한 설명 방식으로 맛을 더한다. 실제 벌어졌지만 독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 자체가 주는 충격과 교훈이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첫째,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또 희생됐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약간의 값을 지급하면 쉽게 성경을 구매하고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다. 단순히 잘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 자체를 함부로 대하는 자세는 지난 수 세기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뜻을 조명하여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에도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

둘째, 거룩한 성경은 사악한 인간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살인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았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했다.

▲수원 '더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존로스성경 역사극 초연에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 백홍준 역할을 맡은 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표가 곤장을 맞는 장면. ⓒ크투 DB

저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본질상 보수적 성향의 종교 제도는 교육의 주도권을 잃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대중이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면, 올바른 신앙과 실천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45쪽)"라고 말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다른 입장에 섰는데, 대중이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면 올바른 신앙과 실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루터는 대중을 위해 독일어로, 틴데일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성경이 나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개인의 권면과 직위를 통한 강요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것이다. 그럴 때 성경은 스스로 일한다.

제목만 보고도 강한 흥미가 유발된 이 책은,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독자에게 새롭고 풍부한 역사의 교훈을 남겨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청종하는 마음으로 빚어줄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韓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렘브란트 '엠마오의 저녁 식사'

일상이 기적 되는 순간… 분주함 내려놓아야 보인다

낡고 허름한 여관 배경, 조촐한 식탁 둘러앉은 네 사람의 인물 빛, 예수님에게서 은은히 배어

산전수전 겪은 중년 렘브란트, 주님 만나는 일상 깨달았을 것 시중드는 인물, 우리의 자화상

분주함, 우리의 영적 눈 가린다 빵 나누는 것, 삶과 운명 함께 무리한 계획으로 다그치기보다 곁에 계신 주님 놓치지 않으려

달력이 바뀌고 햇수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출근길은 붐비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매스컴에서는 연일 우울한 뉴스를 쏟아낸다.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무겁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처럼 말이다.

새해의 문턱에서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69)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The Supper at Emmaus, 1648)'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그림은 화려한 광경이나 요란한 목소리, 과장된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저 낡고 허름한 여관을 배경으로 조촐한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할 뿐이다. 환희와 벅찬 감정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림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24장 이야기는 '실패'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그를 철썩같이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낙심에 빠졌다. 실망한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한 낯선 나그네가 합류한다. 그들은 길 위에서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날이 저물자 그들은 여관에 들어갔고 식탁에 둘러앉아 예수님께서 빵을 떼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눅 24:30-31). 렘브란트는 제자들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주목하였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1648년 작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렘브란트 예술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구도는 지극히 안정적이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제자를, 그리고 뒤편에는 시중드는 사람을 배치했다. 마치 교회 제단화를 연상시키는 둥근 아치형 벽감이 예수님 뒤를 감싸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임을 암시하는 장치다.

아무래도 이 그림의 백미는 단연 '빛'이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의 마술사'답게 명암법(Chiaroscuro)을 탁월하게 구사했다. 젊은 시절 그의 특기이기도 했던, 눈을 찌를 듯한 강렬하고 극적인 빛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빛은 예수님 자체에서 은은하게 배어 나온다. 촛불도 등잔도 보이지 않지만, 화면 전체를 감싸는 부드럽고 따스한 황금빛 광휘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시작돼 식탁 위의 흰 식탁보와 빵을 비춘다.

예수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남은 듯 다소 야위고 창백하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자애롭다. 이 예수상은 렘브란트가 1648-1650년경 제작한 예수의 두상 습작(tronies)과 유사한데, 겸손한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후광 사이의 유사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생동감 넘치는 모습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렘브란트가 동네에 사는 유대인 모델을 기용했다고 확신했다(Shelley Perlove and Larry Silver, Rembrandt's Faith,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9, 314쪽).

다른 점이 있다면 두상 습작이 초상화 스타일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선 빵을 쪼개고 있다는 점이다. 그 손동작은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의 이미지를 재현한다.

작품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렘브란트가 20대 청년 시절 그린 동명의 작품(1628)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젊은 날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한 편의 스릴러 영화 장면 같다. 예수님은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으로만 처리돼 신비롭고 압도적인 힘을 뿜어낸다. 이를 본 제자는 공포에 질려 의자를 넘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것은 '충격'과 '두려움'으로서의 하나님 체험이었다.

▲렘브란트, 엠마오의 저녁 식사, 마호가니 패널 위에 유채, 65x68cm, 1648, 루브르 미술관 소장.

하지만 루브르 미술관이 소장한 1648년 작품은 다르다. 의자는 넘어지지 않았고, 비명도 없다. 예수님 오른쪽 제자는 움찔하며 상체를 뒤로 젖히고, 왼쪽 제자는 두 손을 얼굴에 대며 '이럴 수가' 하며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격정적 드라마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내면의 침묵과 평화가 채웠다.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의 렘브란트는 깨달았을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천둥번개가 치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탁 자리에 고요히 스며드는 따스한 위로라는 것을.

종교개혁 이후 네덜란드 미술계에서는 '일상의 재발견'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태도가 생겨나면서, 얀 스틴(Jan Steen, 1626-1679)이나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 1632-1675) 같은 화가들이 빵을 자르고 우유를 따르는 소박한 식사 준비 장면을 긍정적으로 그렸다. 예수님과 사도가 등장하는 것만 제외한다면, 이 그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날 렘브란트가 그렸던 '엠마오의 저녁 식사', 패널에 유채, 1628.

이 그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인물이 있다. 바로 예수님 뒤에서 음식을 나르는 인물이다. 그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식탁 위 접시에 머물러 있거나 자신의 일거리에 사로잡혀 있다.

어쩌면 이 시중드는 인물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 바쁘다.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업무, 자녀 교육, 처리할 과제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쉬는 시간도 아까워 '멀티태스킹'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분주함'이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 주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분을 보지 못한 채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 시중드는 인물에게 예수님이 '여러 손님 중 한 명'이었듯,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현대인은 성과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자신이 생산해내는 것만큼만 가치가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더 많이 생산할수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상 쫓기는 삶을 산다. 필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과 씨름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음을 깨닫곤 한다.

라틴어로 '동료'를 뜻하는 단어 '컴패니언(Companion)'의 어원 '콤파니오(Companio)'는 '함께(Com)'와 '빵(Panis)'이 합쳐진 말이다. 고대나 중세 사회에서 '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주식이었다.

따라서 누군가와 빵을 나눈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나눠주는 행위이자 삶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이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떼어 주시며 진정한 '동반자(Companion)'가 되어 주셨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하다. 매일의 식탁에서 가족과 눈을 맞추는 것,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힘겨운 이웃과 작은 것을 나누는 그 소박한 행위 속에 예수가 계신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 흰 식탁보는 그래서 더욱 눈부시다. 그것은 성례의 제단보이자 동시에 평범한 가정의 식탁보이기도 하다.

올해는 무리한 계획으로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주님과의 동행을 세상의 분주함에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을 올 한 해 동안 품고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삼으려 한다.

서성록 명예교수

LA사랑의교회, 차세대 졸업생에게 전한 '아버지의 마음'

[다음세대가 답이다] 기독일보는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찾아 그들의 사역과 비전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사랑의교회는 지난 14일 차세대 사역원 졸업예배를 드렸다. 차세대를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다.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13주)' 가운데 차세대 사역원 졸업예배를 겸해 드리며 호세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기섭 목사의 설교와 함께 졸업생 대표 앤드류 서(Andrew Suh)의 간증이 이어지며 은혜를 더했다.

'뒤척이는 아버지의 마음'(호세아 11:1-9, 예레미야 31:20)이란 제목으로 전한 김기섭 목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다"고 말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자녀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용사이시며 파이터이시다. 자기 자녀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알에게로 갔다"며,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하시고 뒤척이시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호세아 11장을 중심으로 "죄는 관계의 배신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것이 죄"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자녀가 죄의 길로 갈 때 분노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찢으시는 분이시다"라며,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넘겨주겠느냐는 하나님의 절규가 호세아 11장에 나타난다"고 전했다.

특히 김 목사는 호세아 11장 8절을 강조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표현을 설명했다. 그는 "이 단어는 원래 심판과 멸망을 묘사할 때 쓰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셨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다"고 강조했다.

또한 십자가를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 아버지의 비유를 들며 "집을 떠난 아들을 찾기 위해 골목에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잘못을 용서했다'고 적어 놓은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며 "죄책감과 정죄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라"고 권면했다.

이날 졸업생 대표로 나선 앤드류 서는 간증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사랑을 나눴다.

그는 "입시의 치열한 과정 속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뜻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의 겸손과 섬김을 배웠다"며 "비판보다 인내, 정죄보다 은혜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고 전했다.

앤드류 서는 "이곳에서 배운 사랑과 섬김은 앞으로도 제 삶 속에서 이어질 것"이라며 "이 사랑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해지기를 바란다. 늘 인내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LA사랑의교회 주일예배에서는 13주간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었다. 구약의 창조와 출애굽, 선지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사랑을 살펴보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조명했다. 이어 서신서를 통해 양자됨의 확신, 징계와 사랑,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 등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며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돕고 있다.

이번 차세대사역원 졸업예배에서는 유아부 1명, 유치부 2명, 초등부 15명, 중등부 9명, 고등부 5명 등 총 32명의 학생이 졸업 또는 진급의 기쁨을 나누었다.

LA사랑의교회는 이번 졸업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예배 가운데 깊이 묵상했다.

토마스 맹 기자

스티브 힐튼 공화당 주지사 후보, LA 한인타운서 타운홀 개최

공화당 후보 스티브 힐튼이 17일 LA 한인타운을 찾아 한인 유권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결선을 앞두고 있는 공화당 후보 스티브 힐튼이 17일 LA 한인타운을 찾아 한인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인타운 더 원 이벤트홀에서 약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지역 언론과 한인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함께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는 대회장 조명국 본부장, 김회창 박사, 공동본부장 미미송 박사 팀이 주관하였다.

행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힐튼 후보는 자신의 주요 정책 공약을 설명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제 회복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헝가리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한 힐튼 후보는 "부모님은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 자유를 찾아 서방으로 탈출했다"며 "자유와 기회를 추구하는 이민자들의 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수년간 과도한 세금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경제 활동의 자유는 확대해 캘리포니아를 다시 살기 좋은 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힐튼 후보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가구 소득 15만 달러 이하 주 소득세 면제 ▲15만 달러 초과 소득에 대한 8% 단일세율 적용 ▲휘발유 가격 안정화 ▲공공요금 인하 ▲주택 건설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모든 법인(C-Corp, S-Corp, LLC)에 부과되는 연간 800달러 프랜차이즈 세금 폐지를 약속했으며,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은 자유에서 시작
세금 부담보다 성장의 기회를
규제는 줄이고 활력은 높이고
안전한 캘리포니아 향한 약속**

힐튼 후보는 홈리스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노숙 캠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치안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으며,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는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외부 간섭 없이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원로회의 관계자들과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공화당 한인 지도자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약 13개 질문을 통해 힐튼 후보와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주최 측은 "한인사회가 캘리포니아의 미래 정책 방향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의 축하 공연과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축복기도를 끝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토마스 맹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어뉴이티 불안하시죠? 이것은 꼭 아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을 정리해서 어뉴이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 합니다.

Q1. 어뉴이티는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는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뉴이티에 30만불을 넣어 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불에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월급처럼 평생 찾아 쓰는 어뉴이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Q2. 어뉴이티를 10년 묶어 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패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면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뉴이티가 싫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뉴이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 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패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뉴이티도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Q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달에 어뉴이티에서 3천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천5백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맞나요 ?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인컴으로 받는 어뉴이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면 한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때 까지 계속 됩니다. 혹시 공동명의로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인컴이 3천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천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명의이시니까요. 어뉴이티도 똑같습니다.

Q4.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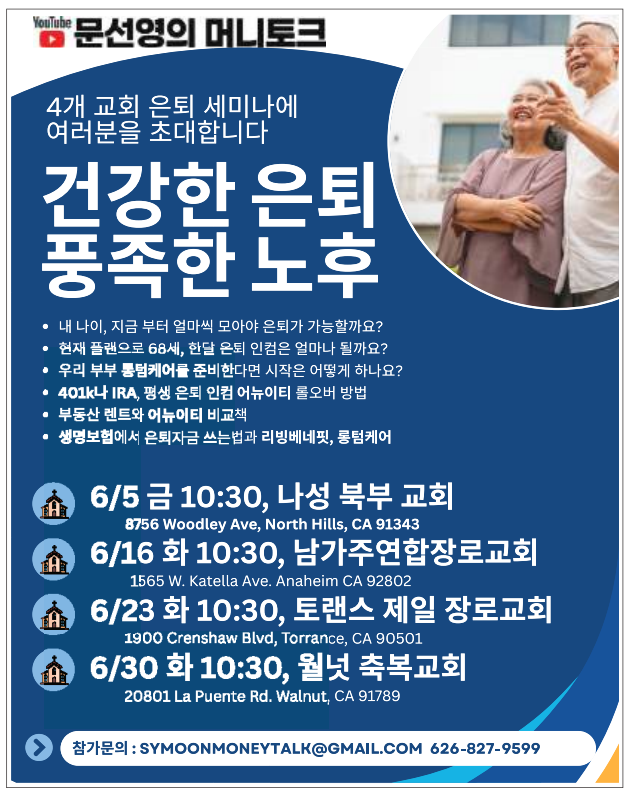
아 이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 를 어디에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 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 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택스 코드를 가직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이름은 어뉴이티이지만 IRA 세금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Q5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쉬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쉬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쉬밸류 일부를 남겨 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어뉴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가 맞습니다. 아 잠깐만 ~~ 6월 나머지 은퇴와 어뉴이티에 대한 세미나를 안내하겠습니다.

이미 6월 동안 3번의 세미나를 잘 마쳤고요, 많은 분들이 와 주셨죠. 자 이제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토랜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월넛 축복교회에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오세요. 많이 들으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비즈니스가 사명이 되는 시대

건강 · 경제 · 선교를 하나로

1. Teloyouth B.A.M은 비즈니스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 Teloyouth 핵심 메시지
-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36배)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복 프로그램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재구매율 91%–지속 가능한 구조
- 온몸의 세포 기능 · 구조 · 감정까지 회복
- 100만 명 이상 변화된 글로벌 사례

2.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 성도들의 실제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
-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
- 선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
-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글로벌 리더십 플랫폼

B.A.M (Business As Mission)

– 비즈니스가 선교입니다
– 가정이 선교입니다
– 우리의 일터가 선교입니다

Teloyouth는 사역과 비즈니스가 하나 되는 플랫폼입니다

3. 세대별 비전

- **차세대 (20-30대)**
  → 글로벌 창업 & SNS 기반 사역 (Telopet 포함)
- **중장년 (40-50대)**
  → 글로벌 헬스 비즈니스 리더십
- **시니어 (60+)**
  → 건강 회복 + 경제적 은퇴 플랜 + 사역

TELO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초청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건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 삶 전체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세우며 세계를 섬기는 리더로 서십시오.

미팅 핵심

- 실제 B.A.M 사역 진행 스토리 공유
- 건강 회복 & 삶의 변화 사례
- 글로벌 확장 비전 발표
- 차세대 리더 세우기 전략

대상

- 목회자 · 사역자
- 크리스천 사업가
- 차세대 창업가 & 리더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모임 안내

특강 강사: **폴 킴** 수석코치

2026년 7월 11일 (토) 오후 1:30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세미나 후 비즈니스 기회 설명회

매주 목 토 오전 9:45 분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약 필수

문의 및 예약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TELOYOUTH

텔로유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